

삼성-애플 '패블릿 전쟁' 불 붙었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4.7인치와 5.5인치 새 아이폰과 스마트 손목시계(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내놓은 것은 다른 스마트폰·스마트 손목시계 제조사에 위협이 될 만하다.

‘애플이 없는 땅’에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제조사와 타이젠 제조사끼리 벌이던 경쟁에 애플까지 들어온 셈이 됐기 때문이다.

◇아이폰6·애플의 귀환=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 처음 5.3인치 갤럭시 노트를 내놓은 이후, 대화면 스마트폰을 일컫는 패블릿(Phablet,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합성어)은 점차 스마트폰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꺾으려면 애플도 패블릿을 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애플은 외면했던 4인치 초과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 6·6플러스를 통해 공략하면서, 기존의 4

애플, 대화면 ‘아이폰 6’ 출시 전자결제 시스템 ‘애플페이’

패션 아이템 애플워치도 주목

인칭 시장은 아이폰5s와 아이폰5c의 가격을 낮춰 대응하고 있다.

위낙 세계적으로 유통망이 탄탄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패블릿 출시로 1위 자리를 쉽사리 잃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와 애플의 추격·견제를 동시에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

◇‘패션 아이템’ 애플워치=애플이 함께 내놓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워치는 기능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보다 패션 아이템의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제품이다. 스마트 손목시계 시장은 페블과 소니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고, 뒤이어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하드웨어와 기능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면 애플은 디자인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 이들에 도전하고 있다.

작용형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하려면 평소 정보기술(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플의 선택은 의미가 있다.

애플이 애플워치를 무려 34종류나 내놓고, 실제 18K 금으로 만든 제품까지 선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행사를 지켜본 패션지 엘르코리아(ELLE Korea)의 강주연 편집장은 “어쩌면 내일부터 애플의 경쟁자는 삼성이 아니라 롤렉스나 오메가, 에르메스가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애플 제품이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결제보다 편한 ‘애플페이’=당분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애플이 함께 내놓은 전자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는 편의성과 보안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해외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T 신기술은 편의성은 높은 반면 보안에 있어서는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애플페이는 드문 예외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의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와 연계돼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결제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일반 신용카드의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읽히는 방식인데, 때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카드의 복사본을 만드는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애플페이는 점원이 카드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번호와 소비자의 이름도 알 방법이 없어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나이키와 맥도날드 등 대형 체인점에 이미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결제장비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시장 안착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애플이 9일 출시한 아이폰 6(왼쪽)과 애플워치.



금주의 추천 앱

명절 후유증서 빨리 벗어나세요

명절 연휴 여파로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일상 생활에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 시간에는 명절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앱을 소개한다.

릴렉스 멜로디

- ◆릴렉스 멜로디 / 제작: Ipnos Software / 사용기반: 안드로이드
- 릴렉스 멜로디는 뇌파 동조를 위한 바이노럴 비트 주파수 2개, 자연의 소리 등 46개의 멜로디를 통해 쉽게 수면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아이폰에서는 ‘굿슬립’이라는 앱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의사다

- ◆나는 의사다 / 제작: BEST CAST / 사용기반: 안드로이드, 아이폰
- 인기 팟캐스트 방송(인터넷 방송)인 ‘나는 의사다’의 앱 서비스이다. 김진(김종업, 건강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양광(양광도, 청년의사 신문 편집국장, 비뇨기과 전문의)이 매주 건강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다함께 스트레칭

- ◆다함께 스트레칭 / 제작: Wattpad.com / 사용기반: 안드로이드, 아이폰
-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 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함께 스트레칭은 ①생활 속에서 ②운동전, 후 ③의자에서 ④취침전, 기상 후 총 4가지로 구성된 다양한 스트레칭 노하우를 그림과 영상으로 제공한다.

DESIGN ZOOZ 제공: 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기존 고객을 지켜라”...이통시장 기변 중심 재편 움직임

정부 제재로 신규가입·번호이동 유치 어려워진 이통사들 혜택 늘리고 기기 변경에 집중...2분기 해지율 크게 줄여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력해지면서 이통통신시장이 기기 변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정부 제재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 이통사들이 기존 고객과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1.9%의 해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의 해지율(2.1~2.3%)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전

체 이동통신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이 업체의 해지율이 2%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06년(연평균 2%) 이후 8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이 업체의 7~8월 기기 변경 비율은 1~3월에 비해 25% 증가했다.

SK텔레콤은 4~5월 4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의 혜택을 강화하기도 했다. 다른 통신사 역시 SK텔레콤과 유사한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며 기존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각각 ‘스편지플랜’, ‘대박 기변’

SK텔레콤의 기기 변경이 늘고 해지율이 감소한 것은 이 업체가 과거보다 기존 고객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엄해지면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통한 시장 확대가 어렵자 ‘집토끼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은 4~5월 4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의 혜택을 강화하기도 했다.

다른 통신사 역시 SK텔레콤과 유사한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며 기존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각각 ‘스편지플랜’, ‘대박 기변’

상품을 내놨다. KT의 스편지플랜은 가입 1년 후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일 경우, 단말 반납을 조건으로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잔여 할부금 부담없이 최신 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어 가입자 부담을 덜어준다.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 또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을 사면 기기변경 사용권을 제공하고, 중고 기기를 최고가에 매입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이통사들이 기존 고객 지키기를 위해 결합상품에 집중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1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27일~9월2일, 9월11~17일로 정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일정한 수준의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음식물처리기 신개념 제품!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일주일체험 무이자할부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사용 후 결정 국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